

코로나에 가게 문 닫는 사장님...자영업자 비중 10%대로 '뚝'

지난달 취업자 수 7년6개월 만에 최대 증가
자영업자 552.8만명...취업자 내 비중 19.9%
직원 둔 자영업자 34개월째 ↓...나홀로 사장 ↑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 20% 아래로 떨어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마저 감소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몰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8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67만1000명(2.5%) 늘며 2014년 3월(72만6000명)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취업자 감소의 기저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3월부터 7개월 연속 고용 회복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 가중된 모양새다.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552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6000명 감소했다. 동월 기준으로 1993년 이

후 2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7%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비중이 20% 아래로 내려간 건 198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가 닥친 지난해 9월에는 20.56%로 20%대를 유지했으나 1년 만에 10%대로 내려간 셈이다.

자영업자 비중은 역대 다른 위기와 비교해도 현저히 작다.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역대 위기로 꼽히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28.23%)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25.48%) 때도 자영업자 비중은 20% 이상을 유지한 바 있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4만8000명(-3.6%) 감소하며 34개월째 쪼그라들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2000명(0.5%) 증가하며 2019년 1월 이후 2년 8개월

째 으뜸세를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까지 감소하자 '인건비'를 줄이며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지난 7월12일부터 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서야 백신 접종자 대상 인센티브는 확대됐지만, 자영업자의 영업은 여전히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60%가 폐업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26일 소상공인·자영업자 2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6명에 달하는 59.9%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폐업을 고려한 적 있다'고 밝혔다.

폐업 고려의 주된 이유로는 매출액 감소(36.4%)가 가장 높았으며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 지출 부담(18.0%), 대출 상환 부담 및 자금 사정 악화(11.1%) 순이었다. 매출 변화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90.8%가 '줄었다'고 대답했다. 변화 없음은 6.5%, 매출이 증가했다는 2.8%에 그쳤다.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4~6



월) 자영업자 대출은 1년 전보다 13.7% 증가한 85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로는 18.8%로 증가율이 더 높았다.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금융권 대출을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상환 및 만기 연장은 지난해 4월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

으나 코로나19 4차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한 차례 더 연장을 결정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도 속도를 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다만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단계

적 일상 회복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고 해도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자영업자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일용직 등 고용취약 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피해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지원금, 손실보상 등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반값 복비' 부동산 "어려움 가중" vs 소비자 "더 낮춰야"

정부 수수료 개편안 19일부터 시행...반값 복비 현실화

중개수수료 개편안

-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율 인하
- 9억 이상 구간 세분화하고 최고요율 인하

매매현행			개편			임대차현행			개편		
거래금액	최고요율(%)	최고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최고요율(%)	최고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최고요율(%)	최고요율(%)	한도액
0.5억미만	0.6	0.6	25만원	0.5억미만	0.5	0.5	20만원	0.5~1억	0.4	0.4	30만원
0.5~1억	0.5	0.5	80만원	1~3억	0.3	0.3		3~6억	0.4	0.3	
1~2억	0.5	0.5		6~9억	0.4	0.4		9~12억	0.8	0.4	
2~6억	0.4	0.4		12~15억	0.8	0.5		15억이상	0.8	0.6	
6~9억	0.5	0.4									
9~12억	0.5	0.5									
12~15억	0.9	0.6									
15억이상	0.9	0.7									

자료: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보수를 대폭 낮추는 이른바 '반값 복비' 시행 첫날인 19일, 소비자들과 중개사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수료가 비싸다며 더 낮춰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중개업소들은 거래도 없는데 수수료까지 낮아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매매계약의 경우 중개보수 요율이

6억~9억원 미만은 현행 최대 0.5%에서 0.4% 이내로, 9억~12억원 미만은 0.9%에서 0.5%로, 12억~15억원 미만은 0.9%에서 0.6%로, 15억원 이상은 0.9%에서 0.7%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0억원 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중개보수가 최대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억원 아파트는 최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10억원은 9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전세 거래의 경우에도 10억원 짜

리 아파트 보수는 8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6억원 짜리 전세 거래 보수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지게 된다.

정부가 중개 보수를 낮추는 조치를 취한 것은 집값 상승으로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르자 집값에 비해 책정되는 중개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일단 환영하면서도 중개 보수가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그동안 중개보수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줄여주니까 부담이 조금 줄어들 것 같다", "수수료율이 낮아져서 다행이지만 중개사들이 하는 일에 비해 수수료가 아직도 비싸다"는 등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가뜰이나 매매·전세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줄어들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하남시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거래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중개보수까지 인하돼 앞으로 2~3년 사이에 중개업소 3분의 2 가량은 없어질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중개업소들은 죽으라는 얘기"라고 정부를 원망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12~1월 국제선 예매 2.6배 상승...'위드 코로나' 기대감

G마켓·옥션 9월 항공권 매출 전년비 69% ↑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앞두고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국제선 항공권 매출이 최대 2.6배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베코코리아가 19일 공개한 G마켓과 옥션 9월 국제선 항공권 매출액 분석 결과, 올해 12월과 내년 1월에 출발하는 항공권 평균 매출이 160% 높아졌다.

9월에 판매한 국제선 항공권 총 매출액은 지난해 9월과 비교해 69% 증가했다. 앞서 8월과 비교해서도 29% 상승한 수준이다.

예약 인원 증가율을 기준으로 인

기 여행지를 살펴보면 1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증가한 캐나다 항공권 매출이 최대 2.6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격리 부담이 없는 괌과 몰디브가 9월부터 인기 여행지 10위권 내에 들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인기 도시는 순위별로 미국 로스앤젤레스(491%), 애틀랜타(200%), 뉴욕(167%) 순이었다.

세대별로는 50대 이상 고객이 구매 고객 절반을 차지했으며, 독일, 스페인과 같은 유럽을 선호했다. 유학생 자녀를 찾아가거나 관광, 휴양이 목적

으로 여겨진다.

1020대 비중은 5%에 머물렀다. 3040대의 경우 45%를 차지했다.

G마켓과 옥션은 '이제는, 해외여행' 기획편을 진행한다. 팜, 사이판, 하와이, 푸켓, 유럽 등 '트래블 버블'이 체결된 여행 권역을 중심으로 추천 상품을 선보인다. 각 나라별로 백신 1차, 2차 접종 필요 여부와 자가 격리 면제 여부 등 상세한 정보도 제공한다.

인터파크투어에서도 '사이판 패키지' 상품에 예약을 걸어둔 인원이 1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연말 예약이 마감됐지만 대기자가 늘고 있다.

유유나기자

'애플워치7' vs '갤럭시워치4'...헬스케어로 승부 펼친다

애플, 명상 가이드앱·운동 유형 감지 기능 향상



삼성전자와 애플이 올 가을 스마트워치로 맞붙는다. 양사는 둘 다 헬스케어 서비스에 집중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다. 먼저 출시한 삼성전자가 갤럭시워치4를 앞세워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공세를 펴는 가운데 시장 1위 애플은 '애플워치7'를 최근 출시하면서 방어전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5일 신규 스마트워치 '애플워치7'을 정식 출시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호주·캐나다·중국·일본 등 50여개 국가에 동시에 선보였다.

스마트워치 시장은 빠르게 크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2분기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했다. 현재 이 시장의 최강자는 애플이다. 아이폰 생태계를 바탕으로 애플워치의 2분기 글로벌 스

마트워치 시장 점유율은 28%다. 이어 화웨이(9.3%), 삼성전자(7.6%), IMOO(6%), 가민(5.8%) 순이다.

먼저 '애플워치7'은 기능 측면에서 전자파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다만 화면의 크기가 약 20% 커진 것이 특징이다. 베젤도 1.7mm로 40% 가량 얇아졌다. 본체 크기도 41mm, 45mm 등으로 약간 커졌다.

배터리 사용시간은 18시간으로 같지만 충전 속도는 전작 대비 30%가량 빨라졌다. 45분 만에 배터리 충전율을 0%에서 80%까지 채울 수 있다. 8분 충전으로 8시간 동안 수면을 측정할 수 있다. 또 애플워치 최초로 IP6X 방진 등급이 적용됐다.

이번 제품에 새롭게 적용된 운영체제 워치OS8을 통해서 명상 가이드를 통한 '마음 챙기기' 앱이 제공되고 '운동 유형 감지 기능'이 향상된다. 수면

중 평균 호흡수 측정도 가능하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전기 심박, 심전도, 혈중 산소 포화도 등을 체크할 수 있다. 가격은 49만9000원부터다.

애플은 애플메스와 협업해 두 가지 모델을 선보였다. 애플 체인 디자인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서킷 헤이치(Circuit H)'와 1930년대 반려견 목줄 디자인을 본뜬 '구르멧(Gourmette) 더블 투어' 등을 통해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이보다 앞서 지난 8월 갤럭시워치4를 출시하면서 건강관리 기능을 강조했다. 체성분 측정, 헬스 모니터링 등 헬스케어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혈압이나 심전도 등 건강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액티브센서'도 처음 탑재됐다. 특히 '갤럭시 워치4' 시리즈는 체성분 측정 기능도 지원한다. 사용자는 어디서나 스마트워치에 두 손가락을 대기만 하면 골격근량, 기초 대사량, 체수분 및 체지방률 등을 약 15초만에 확인할 수 있다.

갤럭시워치4 가격은 LTE와 블루투스 모델에 따라 26만9000~33만원이 다.

갤럭시 워치4 클래식은 36만 9000~42만9000원이며 골프 에디션 모델은 29만9000~32만9000원이다. 서선욱기자

'금리 2.45%'...AI 페퍼스 배구사랑 회전정기예금 출시

페퍼저축은행 광주·전주지점 창구서 가입

여자프로배구 신생구단 'AI페퍼스'의 구단주 페퍼저축은행이 배구단 창단을 기념해 연고지역인 호남 지역민을 대상으로 연 2.45%의 '배구사랑 회전정기예금상품'을 출시했다.

페퍼저축은행은 광주를 연고지로 출발하는 여자프로배구 V리그 제7구단 'AI페퍼스' 배구단의 창단을 기념해, 호남 지역주민을 위한 'AI PEPPERS 배구사랑 회전정기예금'을 기획했다고 19일 밝혔다.

'배구사랑 회전정기예금'은 광주와 전주 지점의 창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1000억원 한도로 판매되는 '배구사랑 회전정기예금'은 이날 기준 단리 연 2.45%, 월 복리 연 2.47%의 금리로 출시됐다.

상품 가입 기간은 최소 24개월에서 60개월이며 12개월의 회전주기가 도래하면 가입 당시의 회전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돼, 자동 연장 또는 해지가 가능하다. 12개월마다 금

리 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

광주와 전주 지점을 방문해 '배구사랑 회전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배구공을 한정 증정한다.

김성수 페퍼저축은행 지점총괄 본부장은 "배구사랑 회전정기예금은 광주를 연고로 탄생한 AI 페퍼스 배구단을 응원하고 호남 지역 주민과 상생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이다"며 "수신 상품을 지속적으로 기획해 배구가 광주의 대표 스포츠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